

우회 항로를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하고 있어, 수에즈 항로 대비 약 7,000km 단축이 가능한 북극항로 개척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, 국민적 주목을 받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- 문대림 의원은 “기후위기와 국제정세 급변에 따라 북극항로의 미래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.”며 “북극항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- 한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출범식에 이어 수산단체대표자 정책간담회와 북극항로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활발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. (/끝)

[첨부]

1. 토론회 포스터 1부 끝.

북극항로,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

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토론회

2025. **03.24** (월) 10:00

국회도서관 소회의실

주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

| 좌장 | 이대식 (유라시아21 회장 / RIO Institute 대표)

| 발제 | **북극항로,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**
김태유(서울대학교 명예교수)

| 토론 | **해빙의 어제와 오늘, 그리고 미래**
김현철(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 센터장)

북극항로 주도권 경쟁과 과제
최수범(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외연구위원)

북극항로 가능성과 각국의 동향
김엄지(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실장)

항만특성에 맞는 북극항로 대응 전략
박성현(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)

| 문의 | 문대림의원실 02) 784-2820